반하 품귀현상 계속

두충 두충시세가 다소 내림세다. 지난달 1만원 선이던 상품은 9천원 선. 중품은 7천~7천5백원 선, 하품은 6천~6천5백원 선에 도매거래되고 있다.

반하 근당 2만원 선으로 요즘 최상 한가를 기록한 반하는 여전히 극심한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요즘 출하되는 량도 일인당 2~3근 정도가 고작.

마늘 캐는 작업이 시작되는 이달 부터 반하도 다소 출하될 예정이나 올 가을까지는 소량에 그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현재 시세로 보합세 이룰 전망이다.

산약 지난달 근당 4천6백선에 거래되던 산약 도매시세가 5천3백~5천5백원선으로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예년의 7천원 선을 회복하기에는 아직 역부족. 산약은 경북 영주, 영동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산지동향

음양곽 채취량 감소

음양곽 홍천, 춘천, 화천, 철원 등 강원북부지역에서 주로 자생하는 삼지구엽초(음양곽)는 이달부터 본격 채취에 들어간다. 지난해 채취량 8천근에 비해 올해는 약 7천근 정도로 추정. 해년마다 채취량이 줄어들고 있어 예년보다 시세는 다소 상승 움직임. 지난해 산지 거래시세 근당 7천원 선에 비해 올해는 근당 9천원 선으로 오르지 않을까 전망.

자연산에만 의존하고 있는 음양곽 채취량이 갈수록 감소하는 원인은 숲이 울창해지면서 큰나무가 삼지구엽초 성장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산수유 산지 거래되고 있는 산수유 근당 도매시세는 8천~8천5백원 선(전남 구례산). 경기도 양평산은 7천~7천5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지방에서 수입산 산수유가 근당 3천5백원 선에 거래되는 것이 간혹 눈에 띈다는 산지인의 귀띔. 식품원료로 반입해 들어온 물량이 약재로 변칙 유통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당귀떡 드시고 가세요"

상설매장 개장 한 돌 잔치

국산한약재상설매장 개장 1주년 기념 사은행사가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기동 소재 상설매장에서 열렸다.

생약협회는 이날 상설매장을 찾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물레차, 쌍화차와 함께 당귀, 마(산약), 솔잎등을 넣어 만든 약떡을 대접하고 생약재로 달근 약술 즉석시음회도 마련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약떡 시식코너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큰 인기를 모은 코너.

또 행사기간 구매고객에게는 하수오와 마(산약) 냉면을 무료 증정했다.

주부 김성희씨(45세·충랑구 면목2동)는 『약떡을 먹어보니 맛도 좋고, 보약용으로만 생각했던 한약재를 실생활에서 보다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는고 말했다.

한국생약협회가 우리 생약실리기 일환으로 지난해 5월 문을 연 국산한약재상설매장은 질좋은 국산약재를 믿고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생약협회는 상설매장 개장 1주년 기념으로 약떡을 만들어 즉석시식회를 가졌다.

규격품 한약재 7월부터 유통

한약규격품 유통제도가 오는 7월1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한약판매업자는 한약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절대 진열해서는 안된다.

또 기존에 사용되던 비규격한약재는 6월30일까지 완전 소진해야 하며, 한약규격 대상품목을 수입한자는 제조업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경우 법적인 제제를 받게 된다.

개정고시된 한약규격품 유통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한약규격품은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업자만이 제조할 수 있으며, 품목별로 제품표준비, 제조관리 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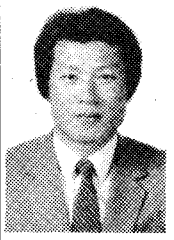
단, 표준규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민이 자가규격화 한 것도 「규격품」에 포함된다. 또 농민이 자체 생산한 한약재를 단순가공하는 행위는 농산물 가공행위이므로 약사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기존판매관행에 따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농진청 특강

22일 농촌진흥청 농업봉무원 교육원에서 농촌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약용작물 안정생산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특강.

인사

▲박영태 경북, 대구광역시 지부장 96년 4월 13일부 ▲고창순 강원 영월군 사무소장 96년 5월 18일부 ▲정임선 대구 남구 사무소장 96년 5월 18일부 ▲노희석 서울 마포구 공판장장 96년 5월 18일부 「免」 ▲이정 전북 완주군 공판장장 96년 5월 27일부



△농림수산부 원예특작국 원예특작과 생약분야 담당 신임계장으로 추길광사무관부임.

내방

△정형모 부회장 △함영환 이사 △이성덕 경기 구리시 사무소장 △이한승 충북 제천군 사무소장 △신상섭 충북 단양군 공판장장 △이용우 대전광역시 공판장장

목단, 발효계분 주면

◆약용작물 지모는 5월30일쯤 꽃대 제거작업을 함으로써 수량이 대폭 느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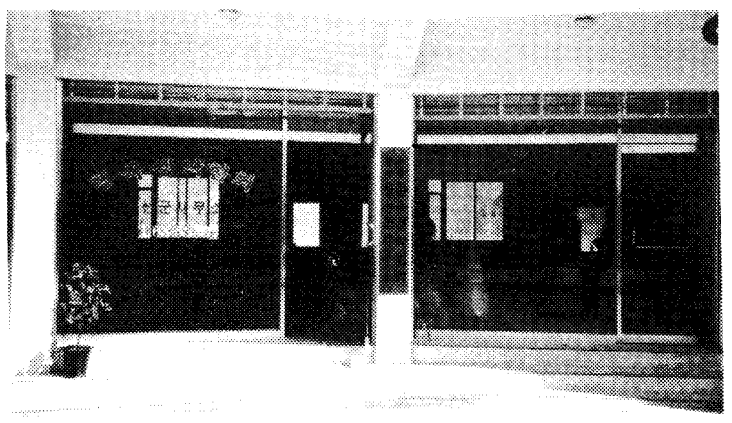
이때 꽃대를 제거하면 뿌리길이가 7·18㎝로 꽃대를 그대로 두었을 때의 6·7㎝에 비해 생육이 좋았으며 약초로 이용가능한 뿌리도 10a에 41%가 증가한 2천2백91㎏이 생산됐다. 6월에 제거하는 것에 비해서도 뿌리 생육과 수량이 증가한다는 것(충남농진원)

기술정보

◆한약재 목단은 10a(3백평)당 질소, 인산, 가리를 각각 10㎏씩 주는 방법 보다 발효계분 1백㎏을 뿌려주는 것이 수량이 22% 늘어나고 뿌리의 말린 무게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요소를 뿌렸을때 목단이 10a당 8백80㎏ 생산되고 건물비도 51·3%인 반면 발효 계분은 각각 1천74㎏, 55·4%로 향상됐다는 것(충북농진원).

수확량 크게 증가

고품질 청정약재 주문판매



저희 생약협회 정선군사무소는 지난 2월 정선군 약령시장내에 사무소를 개장하고 소비자들에게 황기 당귀 백출 복령 일천궁 등 강원도 일원의 고품질청정생약재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당귀묘, 북강활묘, 일천궁, 토천궁, 각종 약초씨앗도 판매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정선군 사무소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6리 1반

전화 : (0398) 63－5333, (0373) 78－5033